



사회적
진화론 9
(Social
Evolutionism)

자본주의(1)

무자비한 자본주의의 출현

진화론은 19, 20세기 동안 단지 나치즘이나 공산주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시기에 이와 상반된 이데올로기인 자본주의 안에서도 영향을 끼쳤다. '다윈의 불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진화론자 헉슬리(Julian S. Huxley, 1887-1975, 영국)도 2차 세계대전 등을 겪으며, 진화론이 사회에 많은 악들을 생산해 왔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 역시 진화론과 마르크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현 21세기를 파악할 수 없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그만큼 여전히 진화론과 거기서 파생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종 불법적이고 무자비한 사업 방법을 과학이란 말로 정당화한다.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업을 경영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되어 기업 간에 파괴적인 경쟁과 회사 내

에서 고용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처우는 자연법칙으로서 정당한 일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적자생존이란 진화론적 개념은 우리 사회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를 사업 윤리라고 불렀다. 즉 ‘더 약한’ 사람과 사업 모두에 한계없이 착취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당화 된 것이다. 그 결과 19세기 후반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무자비한 사업 진행은 그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건강한 기술개발이나 사업 아이디어와 ‘무자비한 사업 방법’은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수가 아니더라도 크리스천 기업인들 중에서 연민을 갖고 근로자에게 따뜻하게 대한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 장치 없는 근로 여건으로 인해 사망과 상해가 증가했는데 손가락, 손, 팔다리가 절단되어 평생 동안 불구로 살게 되기도 했다. 1900년에 들어서 미국에서만 수십년 동안 수백만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9세기 초 미국 근로자 반 이상이 심각한 외상을 입었으며, 어떤 직업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단지 외상뿐 아니라 수는 중독이나 라듐을 통한 암 발생 또한 높아졌다. 제철소의 노동자들은 하루 1.25 달러를 받고 12 시간 동안 근무하기도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철도 선로를 세우다 사망했다. 이에 대한 법적 고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판사 역시 진화론적 사고로 인해 대부분 고용주 편을 들어주었다. 고용주는 이런 위험을 알고 있어도 근로자의 삶이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할 생각은 거의 없었다.

사회진화론의 창시자, 스펜서



사회진화론을 다룰 때 결코 빠트릴 수 없는 한 사람이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 영국)이다. 그를 사회진화론의 창시자라고도 부른다. 그는 스무 살에 동일과정설로 지구가 오랜 기간 동안 변해왔다는 라이엘의 지질학의 원리(Principles of Geology, 1830년 초판 발행)를 통해 진화 개념을 접하면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받아들였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1809년 기린이 높은 곳에 있는 과일을 자꾸 먹다 보니 목이 길어졌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지금의 기린이 되었다는 초기 진화론이다. 그러므로 스펜서는 다윈의 ‘종의 기원’(1859년)이 출판되기 이전에 이미 진화론적 사고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종의 기원’이 출판된 후에 이와 함께 스펜서의 진화론적 사고는 책을 통해 세상에 급속히 퍼졌고, 20세기 초반 유럽에 사회진화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실제로 그는 진화(evolution)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 중에 하나였으며, ‘적자생존



(survival of fittest)’은 그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나중에 다윈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종의 기원’ 네 번째 개정판에서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의 논리는 진화론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함에 따라 다른 사람과 달리 설득력 있고 독창적으로 보였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변했다는 것과 적자생존을 과학적 자연 법칙으로 간주함으로써 모든 인간 생활의 영역에서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인식시켰다. 그는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 이 진화론적 사고로 답을 얻고자 노력했다. 그는 특정 인종이 열등하기 때문에 결국에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스펜서의 첫 책 ‘사회 통계’(Social Statics, 1851)’에서 인간은 진보하며 사회에 적합한 존재가 된다는 자신의 진화론적 사고를 담았다. 이어 집필한 ‘심리학의 원리’(Principles of Psychology, 1855)’는 인간의 심리도 자연법칙에 지배된다고 하며 인간 해석에 진화론을 더 구체적으로 추가시켰다. 그는 자신이 만든 적자생존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강자만이 살 수 있다는 사고로 인간 심리를 부추겼다. 윤리에 대하여도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공리주의 윤리는 행복이 무엇이냐는 정의에 대한 기본적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 상실로 인해 결국에 패락으로 이동하며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이르게 된다.

스펜서의 적자생존이란 사고는 1815년–1914년 동안 제국주의적 정복욕에 있던 영국에게 식민지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즉 현재 강한 나라인 적자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법칙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적자생존이란 사고는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주어 적자인 고용주가

부적자인 고용자를 착취하는 것도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되었고

무자비한 자본주의로 이어지게 하였다.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과 연합하여 유럽을 넘어 다른 나라에까지 알려져서, 19세기의 말에 이미 미국 생활도 그의 생각이 스며들어갔다. 그러나 처음에 미국에서는 그의 사고를 기업에 직접 적용시키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03년 스펜서가 죽었을 때 그의 책이 베스트셀러로 238,000부가 팔리는 기록을 세웠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다윈보다 그의 인기가 더 높아졌다. 그때부터 미국 기업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자유방임 산업 자본주의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제공한 셈이다. 기업의 독점적 관행을 극도로 부추겼고,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을 타당하고 정당하게 여기도록 했다. 일부 기업가들은 정부나 노동자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갖기도 했다.

1884년 스펜서는 '실업자이거나 사회 부담되는 자들은 도움과 자선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죽는 것이 허락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부적절한 사람들을 제거하고 심하게 다그쳐야 한다'는 식의 끔찍한 자신의 철학을 보여주기가까지 했다. 덜 적합한 자나 기업은 제거되어야 하며 '합리적 사람'은 방해받아서 안된다는 냉혹한 진화 법칙은 스펜서의 일관된 결론이었다. 이는 진화의 냉혹한 '생존 법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경제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진화론적 생화학자며 집필가로 유명한 아시모프(Isaac Asimov, 1920-92, 미국)는 그의 영향을 받아 '진화론은 가난한 자나 실업자를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호에 계속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참고문헌

Jerry Bergman, Darwin Effect, Master Books, 2014.

Russell Grigg, Herbert Spencer: The father of social Darwinism, Creation 32(4):52-54, 2010.



ACT News

창조과학탐사
ITCM
한국/홍콩 세미나

대구 성은교회 창조과학탐사

지난 1월 18-24일 한 주 동안 대구성은교회(담임목사 류만욱) 창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창탐은 옥포본리교회(김영중), 샘솟는 교회(조대웅), 행복사랑교회(류범주)가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네 교회는 친분 있는 목사님께서서 교인들을 함께 모시고 온 것입니다. 세도나,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등을 통해서 창조



대구성은교회

와 홍수의 증거를 보았을 뿐 아니라, 데스 밸리, 알라바마 힐스를 경유하며 홍수에 이어서 진행된 빙하시대의 증거도 나누었습니다. 또한 샌디에이고의 창조박물관을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창탐은 친분 있는 교회가 함께 창탐에 올 수 있는 좋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10기 ITCM 마침

지난 해 12월 22일 10기 ITCM(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창조사역 집중훈련) 지난 2월 7일로 마쳤습니다. 이번 10기 ITCM은 일곱 명의 훈련생들이



ITCM 10기

참가하였으며, 강사진도 지질학, 지구물리, 야외 지질, 천문학, 생물학, 인류학, 언어학 등 일곱 명이 총 출동하였습니다. ITCM은 강의, 독서, 창조과학탐사, 야외 실습, 성경공부, 세미나 발표 등 숙식과 함께 진행하는 창조과학선교회의 가장 심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ITCM을 통해 참가자들은 성경, 과학,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진화론의 비진리임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그 위험성도 함께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증거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각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진리는 타협하는 순간 비진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전의 기독교 국가들인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진화론과 성경을 타협함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고, 교회 밖의 사회가 얼마나 악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기 ITCM을 통해서 77명의 훈련생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이 각 학교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귀한 열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ITCM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들의 간증은 뉴스레터와 홈페이지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창조과학탐사

오는 4월 8일부터 송헌성결교회(담임목사 조광성)를 시작으로 11월 1일 베이직교



ITCM 10기

회(조정민) 창탐을 마칠 때까지 2019년 창탐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약 30회 정도를 거의 매주 진행될 정도로 강행군입니다. 진화론으로 가득 찬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증거를 나누며 우리의 사고와 믿음이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감격입니다. 개인적인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기존 스케줄에 들어 가시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특별히 인도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만 회장 3월 중 한국 홍콩 방문

이제만 회장은 오는 3월 한 달간 교회, 학교, 컨퍼런스, 회사 등 한국과 홍콩을 방문하며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가는 곳마다 성경의 확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기를, 그리고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창조과학선교회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우주는 거대한 집이다. 즉 우주는 만물이 거할 수 있는 만유의 집이다. 이 거대한 집을 누가 지었나 아니면 저절로 지어졌나? 또 지은 것이 사실이라면 건축 자재는 무엇이며 그 의도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첫째 날에 나오는 요소들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빛이다. (창1:1-5) 그런데 오늘 날 물리학자들 역시 우주의 건축자재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과 빛이라고 말한다. 또 과학자들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연합되어 있어서 서로 나눌 수 없고 또한 빛이 없이 이들이 존재할 수 없다고 여긴다. 그러면 이렇게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우주, 그 끝이 있을까?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빛으로 이뤄진 우주의 경계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는 말인가? 이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보지 못한 인간의 입장에서 답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이는 시공 속에 갇힌 물질계를 다루는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먼저 시공을 넘어서 창조를 증거하는 성경을 살펴보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성경의 첫 구절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첫번째 일이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시작과 동시에 하늘이라는 공간과 지구라는 첫 물질을 창조한 것이다. 여기서 시간-공간-물질은 모두 동시에 함께 창조된 것이다. 시간-공간-물질 이 세 가지를 함께 표현하는 것은 이들을 각각 구분해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의 첫째 날 첫 번째 구절에 사용된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바라(Bara)이며 이는 절대 무(無)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낼 때 비로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다. 여기서 절대 무(無)라는 개념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주의 끝, 다시 말해서 우주의 경계는 절대 무(無)와 유(有)의 경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 무(無)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주의 끝이나 그 한계를 논하는 것은 크게 모순이 된다.

그러면 성경의 기술을 좀더 살펴보자. 첫 성경의 구절에 나오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창조는 아직 빛이 없는 상태(빛에 대해서는 3절에 처음 등장함)로서 이는 오늘 날 과학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말이다. 이는 오직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다. 첫 구절에 창조된 공간은 비었고 아직 형태가 결정되지 않은 물질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세기(1:1)에 등장하는 첫번째 피조물은 시간이다.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시간이 존재하고 아무도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 없을 줄 안다. 그러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일까?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시간을 벗어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시간을 초월한 분임에 틀림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부른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롬 8:39)라고 기록한 것은 시간도 피조물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분의 뜻을 의미한다.

창세기(1:1)에 등장하는 두번째 피조물은 공간이다.

공간은 전후좌우 그리고 위와 아래가 있는 3차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면 공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모두 공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며 역시 아무도 공간을 벗어나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공간의 창조자는 공간을 초월하신 분임에 틀림 없으며, 성경은 그 분을 무소부재 하신 분이라고 부른다.

어떤 과학자는 우리 몸에서 공간을 모두 빼낸다면 나머지 물질은 바늘 끝 안에 다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말한다. “정말일까?” 이 의아스런 반응에 조금만 설명해도 쉽게 이해될 것이다.

물질의 특성을 갖는 가장 작은 단위는 분자다. 우리 몸은 분자로 되어 있고 분자는 더 작은 원자로 구성되어있다. 하나의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고 그 둘레를 전자가 돌고 있다. 그런데 핵과 전자 이 두 물질은 부피가 거의 없고 99.99...%는 공간이 차지한다. 실제로 핵과 전자는 모두 물질일까? 아마도 이들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역시 그들도 대부분 공간일 것이다. 즉 몸의 거의 전부가 공간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몸뿐 아니라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되어있으므로 거의 전부가 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는 말이다.

즉 모든 것들이 거의 공간이므로 경계가 없이 서로 잘 통과될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들어 물질인 몸과 벽 모두 공간이므로 몸이 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몸이 벽에 부딪히면 머리에 혹이 나버린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과 무엇이 부딪힌 것일까? 확률적으로도 물질끼리 부딪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엄밀히 말하면 물질과 물질이 아니라 공간 속의 힘과 힘이 충돌한 것이다. 분자와 분자, 핵과 전자, 핵 속의 미립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공간 사이를 통과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이들을 분리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단지 핵과 전자뿐 아니라 모든 물질들은 인력이라는 서로 당기는 힘을 벗어나

모든 물질들은 인력이라는 서로 당기는 힘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다. “누가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다. “누가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욥38:38)

정말로 근본적인 질문 아닌가? 과학자들이 지금껏 고민하던 질문이다. 즉 하나님 자신이 이미 처음부터 공간 안에 서로 달라 붙게 하는 성질을 넣었다는 말씀이다. 만약 서로 당겨주는 인력을 누군가 처음부터 창조하지 않았다면 어떨까? 물질이 존재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선 바로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 성질을 넣을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한 분임에 틀림없다.

창세기(1:1)에 등장하는 세번째 피조물은 물질이다.

물질은 질량을 가지며 그 질량은 공간을 점유한다. 그러므로 공간으로부터 물질을 분리할 수 없고 반대로 물질로부터 공간을 빼낼 수 없다. 그렇다면 마치

공간으로부터 물질을 분리할 수 없고 반대로 물질로부터 공간을 빼낼 수 없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물질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 역시 알 길이 없다. 우리는

한 순간도 물질을 초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막으로 물질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 역시 알 길이 없다. 우리는 한 순간도 물질을 초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공간-물질을 동시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분이며,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임에 틀림없다.

우주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이뤄졌고 역사는 시간+공간+물질의 흐름이다. 따라서 우주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어느 종교는 인생을 윤회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결코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인생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히 9:27)는 성경의 말씀은 각 인생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다.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인생과 역사는 단 하나며 원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선이다. 성경은 성경의 첫 절을 통해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묻는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직선의 인생 길을 시공과 물질의 창조주와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혼자 갈 것인가?”

창세기의 첫 구절은 우리에게 바로 그 창조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창조자가 우리의 구원자일까? 그렇다! 과연 이분 이외에 누가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창조자 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일관되게 요구한다. 전능한 분 외에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개인은 자신의 역사가 있다. 그가 겪은 역사는 단 하나 뿐이다. 물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만물의 역사도 단 하나 뿐이다. 지구, 해, 달, 별, 동물, 식물, 인류 모두 각각은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역사를 이루며 경험한다. 각각 이지만 결국 다른 시공에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한 역사를 경험한 것이다. 그러므로 첫 절인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바는 이제부터 언급될 이야기인 시간-공간-물질 속에 우리 모두의 역사를 말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만약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인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창조역사와 그 이후의 기록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이 필요하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창세기 1장 1절은 받아들이지만 1장의 다음 내용 중에는 그대로 믿지 않는 것도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1장 1절에 대한 바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와 닿지 않거나, 하나님님이 아닌 사람들의 말에 더 신뢰를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면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생물들이 수십 억년 동안 진화와 멸종이 반복되어 인간이 되었다는 진화 역사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역사란 이 시간-공간-물질의 역사며, 이는 돌이킬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돌이키려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란 과거에 하지도 않았던 것을 했다고 하며, 현재 하지 않고 있으면서 한다고 하며,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공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 없다. 돌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자신도 거짓말하는 분이 되기 때문이다. 첫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정말 안타까우셨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돌이키셨다면 스스로 거짓말 하는 분이 되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과거를 돌이키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의 문제다.

오늘날 진화론자들도 모두 이 시간-공간-물질이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자신들도 과학적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이 시간-공간-물질 스스로 변하여 저절로 만물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초월하신 분이 계시며 그 전능자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2-3)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이동용 박사
항공우주공학



이 기사는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한 자들에 의한 간증 소감문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www.hisark.com 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 대하여 약간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진화론이라는 페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창조과학 탐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 성경이 정말 완벽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듣고 느끼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마칩니다. - 요한서울교회 <조준수>



창조와 성경에 대하여 더욱 더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이 좋았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전하는데 힘쓰길 원하고 더 중요한 것은 처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머물지 않고 매일 새로워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시 좋아질 그 날을 기대하며 전하겠습니다. - 오라 우리교회 <김현우>

이번 창조탐사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진화론적 세계관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강의를 통해 탐사 여정 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많은 세상 이치를 이해했던 삶에서 하나님으로만 세상을 이해

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 온누리교회 서빙고 <최용준>

창조를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한 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을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조과학탐사를 통해서 그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되고 성경이 사실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 특히 중고등학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책임감을 갖고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 받도록 여러모로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화평교회 <박지훈>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 진화론적 세계관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는지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창조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으로 수술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만 듣기 너무 아까운 탐사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감



사합니다. 잊지 않고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수원진흥교회 <강성영>

신학을 배우며 깊고 다양한 지식 앞에 많이 교만해졌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다음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오늘날 사역자와 목회자, 그리고 교회가 이 진리를 잃지 않고 바르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분당허브교회 <김술>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 변질되고 말씀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창조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이 탐사 현장에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북한 함경남도에서 태어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제가 미국땅에 와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직접보고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탈북민들에게 이 창조과학에 대해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분당 지구촌 교회 <이혜경>

2019 ACT Schedule

4/5-7	창조과학세미나 (퍼듀한인장로교회), 이재만
4/8-18	창조과학탐사 (송현성결교회), 이재만
4/21-26	창조과학탐사 (일본팀), 이재만
4/27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4/29-5/4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 이재만
5/1-5	창조과학탐사 (CIU), 김낙경
5/6-11	창조과학탐사 (CGN TV), 이재만
5/16-23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5/25-31	창조과학탐사 (서초충신교회), 이재만
6/2-7	창조과학탐사 (대전온누리교회), 이재만
6/8	창조과학탐사 (순회선교단),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